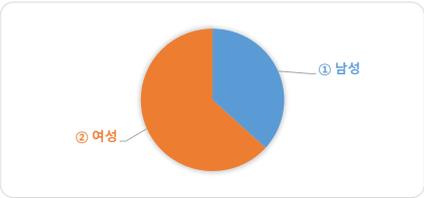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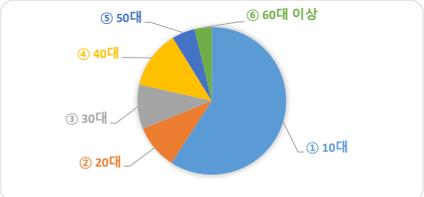


「북촌, 열한 집의 오래된 기억」 설문조사 결과 - 설문응답자 536명(만족도 84.2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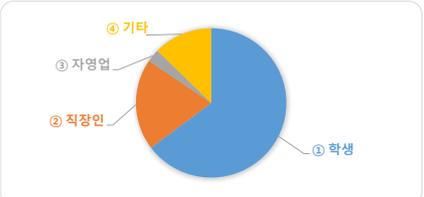
1. 성별	
① 남성	② 여성
197	339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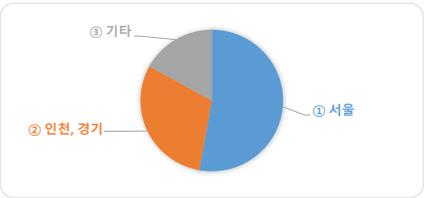
2. 연령					
① 10대	② 20대	③ 30대	④ 40대	⑤ 50대	⑥ 60대 이상
317	52	52	68	27	2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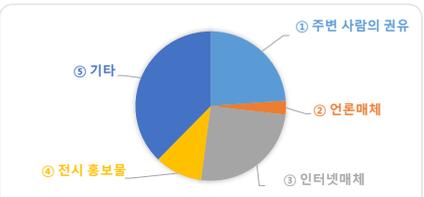
3. 직업			
① 학생	② 직장인	③ 자영업	④ 기타
347	106	15	68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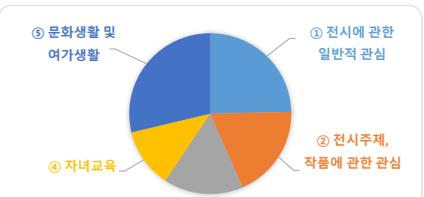
4. 지역		
① 서울	② 인천, 경기	③ 기타
283	162	9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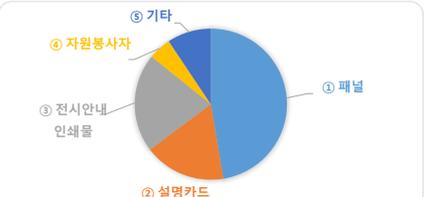
5. 전시에 대한 정보				
① 주변 사람의 권유	② 언론매체	③ 인터넷매체	④ 전시 홍보물	⑤ 기타
128	16	135	55	202



6. 전시를 보러 온 이유				
① 전시에 관한 일반적 관심	② 전시주제, 작품에 관한 관심	③ 학교과제 및 연구	④ 자녀교육	⑤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
132	101	85	64	154



7. 전시이해에 도움이 된 방법				
① 패널	② 설명카드	③ 전시안내 인쇄물	④ 자원봉사자	⑤ 기타
254	93	113	26	50



8. BSC 만족도 (84.22%)				
① 매우 만족	② 만족	③ 보통	④ 불만족	⑤ 매우 불만족
221	229	70	10	6
22100	18320	4200	400	120
BSC 만족도		84.22		

응답수
가중치 점수



※ 전시 만족도 산출식 ((매우 만족*100점)+(만족*80점)+(보통*60점)+(불만족*40점)+(매우 불만족*20)) / 설문인원*100%

<p>9. 개선해야 할 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체험 위주의 전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. · 실내 컬럼. · 방대한 내용을 한번에 소개하다보니 너무 많았음. · 적극적인 홍보 · 글씨가 작고, 어두워서 지도 등은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없었다. · 너무 지루하다. · 그림만 진열된 점이 약간 지루하게 느껴졌어요. · 조명을 조금 밝게 해주세요. · 동영상을 더 만들어 주세요. · 너무 어두워서 좀 분위기가 가라앉는듯. · 도슨트 설명 횟수가 2회보다 더 많았으면 합니다. · 너무 미로같이 생겨서 다리가 아프다. · 물건 설명이 자세히 써있으면 좋겠다. · 재미있게 하는 거. · 유리 전시장 안쪽 설명카드의 글이 작거나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다. · 부모들의 방지도 마음껏 락드는 아이들때문에 불편 - 원가 통제나 권리가 필요할 듯(전시 자라는 7만원) · 쉽게 어려운 말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. · 복선의 역사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었으면. · 체험이 더 많았으면. · 설명 글씨가 잘 안보이고 어려운 한문은 잘 몰라 조금 불편하였습니다. ·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 둔다. · 한자에 대한 풀이가 좀더 보충되면 좋겠습니다. · 너무 어두워요. · 일부 진열이나 진열태를 여과없이 전시한 점. · 체험권이 필요. · 골목길. 	<p>· 아라리오에 방문하기가 조금 어렵고, 하루에 방문객이 적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진 속 지명이 위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보인다. · 도슨트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. · 설명카드 내용이 너무 적은 글씨체여서 정보를 읽기 힘들었다. 전시관이 너무 어두웠다. 아이들 손자국이 너무 많이 풀렸다. · 주관적인 입장으로 전시되었다. 좀 넓고 객관적이었으면 한다. · 전 면적이 어린이들이 오면 쉽게 하는거 생각합니다. · 체험물이 없어서. · 외국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번역 해설이 없지 않아 그냥 스키지나가는 모습 을 보았음. · 영어상해적 전시음. · 전시 관련 책자로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중요한 자료라 생각되어 소장하고 싶어요. · 중간에 많이 쉬어야 할 필요해요. · 계산현의원 총상학 총상학년을 적을 때 1896년생만 적어도 될 것을 굳이 앞에 (명치)29년이라 적어 일제의 잔재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요? 묻고 싶습니다.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· 텍스트를 읽는데 조금 어두웠습니다. · 재미있으면 좋겠다. · 현재 사진이 많았으면 했다. · 전시 구성 전체가 단조로운 모습임, 관람자가 끝까지 관람하는 데 흥미가 떨어 지는 듯 합니다. · 복선의 전반적인 역사보다는 복선 초기 생성과 관련한 인물 중심이 주되어 원하는 방향과는 달랐어요. · 순서를 지켜주세요. · 글 조금만. · 설명판의 위치, 복선의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적었어요. · 화면 크기 낮아지는 속도도 너무 빠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글씨나 다른 자료가 잘 보이지 않음. · 너무 인문 중심. · 특별한 유언가 필요(너무 슬픔). · 전시를 설치 과정 사용된 분도(류 냉재가 남아 있음. · 설명판의 글씨가 작아서 읽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(벽에 부착된 글). ·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한 것 같음. 인문에 편중되어 있다. · 조명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. 밝기를 좀더 밝게 해주세요. · 책자 내용이 좀더 풍부했으면 좋겠다(알맞은 것). · 설명판이 너무 많아요. · 복선: 전시, 정말 잘 보였습니다. 외국인 관람객들도 많이 계신데도요. 이렇게 귀한 자료와 전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. 전시 관련 내내 통번역(영어)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. · 위치를 배치해주세요. · 지루함과 매우 어둡다. · 전시 방향이 헷갈려서 안내로 설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. · 좀더 다양한 자료. · 재미가 없다. · 아깝다. · 의지 수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· 체험하는게 너무 적다. · 문화유산의 생활 물품, 문양의 사진으로 기획된 전시회. · 복선의 설명이 너무 적어서 보기 불편했습니다. · 체험할순계 있었으면 좋겠다. · 전시장 유리에 지문이 너무 많아서 전시물을 관람하기 어려웠습니다. 인력을 배치하여 아이들이 유리를 만지지 못하게 해주세요. · 설명판의 글씨가 작은 것들이 너무 무척 가까이 가서 보여 짜증. 음사조악이 음사조악으로 바뀌어 보여주셨으면 한다. · 시는 국가,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
--	--	--

<p>10. 인상적이었던 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야기들. · 복선과 가족. · 옛날 사람들의 모습. · 복선에 대한 역사를 다시 보게 됨. · 복선에 대해 알게 되었다. · 옛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설명문이 가장 인상깊었다. · 물지게. · 전시 설명이 인상깊었다. · 한옥의 특징. · 동영상을 사진이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다. ·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했던 걸 알게 됐습니다. · 원래 알고 있었던 것보다 여기 오니 새로운 걸 알 수 있게 되었다. · 원사들 이야기. · 복선의 여가주기에 관심있던 것임이다. ·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았다. · 서양식 근대 문명. · 전시 방식(나열), 인터뷰 동영상. · 자기자 기차전 등선. · 윤보선장, 설명문이 정성스러웠습니다. · 이야기들. · 옛날 물건들 직접 확인하거나 볼 수 있어서 그 점이 인상깊었다. · 그곳이 가장 좋았다. 그리고 순가적이 엄청 커서 감격 높았다. · 복선 마을이 공과 가까웠다는 점. · 지금의 복선과는 사뭇 다른 역사는 지역이었다는 것. · 과거에 대해 알 수 있었음. · 복선에 대해 안 것. · 복선마을 가족 변화 영상 본 것. · 복선의 100년의 역사가 신기하였다. (이런 동네가 100년을 버티다니!) · 복선의 명사의 집 소개. · 영상과 구체적인 설명. · 복선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백년전의 역사와 비교해봐서 좋았어요. · 복선에 살던 예술가, 정치인들이 안장조 선생을 지지하고 교류했던 점. 마 치막 수목과 너무 예뻐요! · 사진들과 설명. · 옛 일이 그리워집니다. · 친근함. · 팔팔한 디자인이나 전시를 들은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복선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, 역사, 정치, 문화, 민속 운동 등. · 옛날 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 있어서 좋았음. · 역사를 되짚어보니까 흥미롭다. · 옛 선조님들의 남기신 자취에 공감하고 배우고있습니다. · 복선의 사진 전시. · 옛날 물건들 새롭게 되어 보이게 좋고 물지게가 신기해서 인상깊었습니다. · 옛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설명문이 가장 인상깊었다. · 흔히 알고 있는 관광지화된 복선이 아니라, 양면부터 근대지적인,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까지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· 오래된 사진들 통해 그 당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 좋았다. · 복선의 한옥들이 많이 있는 사진. · 복선 내 살았던 일가들의 이야기가 인상적. 복선 여행을 하고 싶어요. · 다양한 한옥과 잘 알려지지 않은 복선에 대해 알 수 있는 전시였다. · 영보 선도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. · 우리나라의 역사를 더 깊이있게 알게 되었다. · 옛날 물건, 그러나 복역 도구, 기타 등등. · 옛 서울을 알 수 있었던 점. · 서울 시민을 위한 전시가 계속 있어 감사함. · 옛날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. · 깔끔하고 조용하게 배치된 자료들 덕분에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 다. · 디지털된 전시 작품들(인터뷰 영상, 골목길 계절마다 변화하는 영상 등) · 복선을 관광지로만 생각하고 있는데, 역사적 사실과 스토리를 보니 좀더 깊은 이해가 되었다. 생각지 못한 사실과 배경을 알게 되어 감동과 기쁨이 느껴졌다. 특별전을 기획한 분들께 감사와 많은 이가 보일 바랍니다! · 주제가 좋았다. · 물건. · 여러 마을 중 우리가 알아야 하는 역사와 함께 알 수 있어서 좋았다. · 복선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. · 복선에 살던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. · 옛날의 옛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· 복선에 있었던 일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좋아서 좋았다. · 관람 동선이 마을 하나를 돌아다니는 느낌에서 좋았어요. · 전시가 준비를 잘 한 것 같습니다. · 전시물들 통해 근대 역사를 재조명해주신 점. · 복선의 옛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점. · 가까운 곳의 숲이 있는 역사적 의미를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. · 여러가지 볼 거리. · 주제가 걸맞은 유물들의 배치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복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재미있었다. · 몰랐던 복선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습니다. · 옛날 사진이 많았어요. · 기록사진. · 그분들의 삶이 녹여져 있는 듯 하였고 세세한 것까지 알 수 있어 좋았다. · 윤보선 대통령 집. · 아주 상세하게 기획된 전시였음. · 복선에 관한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. · 다양한 가족의 삶과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연결하여 보여 준 점. · 당시 사대인 분들의 존엄. · 당시 설명 자원봉사자의 설명이 너무 좋았습니다. · 주요 정책제 인사나 구한말 중진가가 아닌 일반 의사가 이 별사같은 분들의 생활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. · 복선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설명도 좋았습니다. · 복선의 생활사에 대해. · 복선 가족들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. · 그 당시 한 집안의 속깊은 이야기 속 역사관이 흥미로웠습 니다. · 맹행택 이야기가 인상깊었습니다. · 일상적인 것. · 역사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었어요. · 영상이 재미있었어요. · 역사에 한걸음 더 알았습니 다. · 근대화의 역사가 될, 동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점. · 근대 역사를 복선 지역을 통해 실감나게 알도록 전시한 것. 영이 설명이 잘 되어 있었고 기획이 좋았습니다. · 백민재가유서 서역발 분권인 것! 몰랐는데 꼭 가보고 싶습 니다. 전시장 협선 정말 잘 되어 있음! · 복선에 관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게 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고 싶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와서 관 심있는 몇개만 보고 갑니다. 혼자 조용히 와서 다시 관람하 고 싶네요. · 복선이라는 주제로 사람 중심으로 주제를 심도 있게 설명 한 부분. · 모형들, 옛 물건들. · 복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인문 설명. · 시간, 시대에 따라 변화 영상과 그 다양성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. 재미있는 전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· 실제 생활상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. · 역사적 유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. · 옛날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. 그 시대 한국의 삶 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. · 실제 사료(문물)의 전시. · 서울에 살던 사람들도 일상 모습을 잘 보였음. · 궁전(집)을 주제로 다양한 시기/역사/정치/문화/생계 등을 볼 수 있었던 점. · 그간 접하지 못한 복선의 다양한 변모. · 옛날 복선에 사람이 적게 살았다는 것임이다. · 일제시대에도 한국의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인상적. · 모든 것이 감명적, 특히 '역사를 다룬 점. · 단편적으로 보이면 복선의 현대사가 조금 선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. · 사진과 영상의 다양한 자료들로 이해가 용이. · 쉬운 문장으로 읽기 쉽게 표현한 것. · 개인의 역사가 모여서 나라의 역사가 될 수 있다. · 스케치 자료를 활용한 그림을 사진화하는 기법. 현재의 시 선으로 과거를 잘 복원해가는 것이 현존하고 있음이 인상 깊 었다. · 일한 집의 각각의 특색을 살린 등선. · 생활사 위주의 역사 전시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. · 어떤 역사를 볼지 선택한 복선에 대한 몇몇 분들이 살고 계 셨는지 처음 알게 되었던 점. · 일한에서 쓰던 것들, 생활하던 모습이 너무 인상깊었어요. · 복선의 역사를 가늠하고 인문 별로 분류해서 정리한 것. 복 선의 역사를 알 수 있어 좋았다. · 복선을 재미로 찾았었는데 역사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새 롭게 알게 되었습니다.
--	---	--	--

<p>11. 차후 기획되었으면 하는 전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이 생겨나고 이름이 그렇게 지어지는 등의 서울의 역사. · 서울의 골목. · 유년순 열사에 대한 역사를 조금 추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· 옛날 집. · 오랫 버려진 가문에 대해 알고 싶다(임금). · 서민 이야기. 50-60-70년대 서울 생활. · 625에 대해서 만들면 좋겠다. · 남문에 대한 전시회. · 서울과 외국의 교류 역사. · 같은 주제를 약간 다르게 입체적인 전시로 한번 더 해주시면, 체험 코너라든가 홀로그램 영상, 복선 거리 걸어보기 etc. · 물지게. · 아자산, 용마산 고구려 유적지 특별전 부탁드립니다. · 세종대왕, 이순신 이야기. · 한양의 역사. · 우리나라의 문화. · 일제강점기. · 역촌동(역물) / 구마발 / 전관사 등도 좋은 전시테마일듯요. · 어지러워서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. · 조선어학회. · 조선 역사가 기획 전시 부탁드립니다. · 황계전. · 사람의 배. · 서울 동네의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어 비교하는 사진전. · 사랑, 초코, 콜리 전시. · 옛날 소리 이야기 감동할만한 것으로 부탁드립니다. · 복선 다음으로 시촌 등도. · 서울 명소(유적)의 표지에 관한 전시. · 서울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에 관한 전시. ·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이나 일제강점기의 시위에 대하여 전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·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관한 전시나 일제강점기 당시 시위들에 관해서 전시되었으면 좋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희궁에 대한 전시. · 서울의 음식. ·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다. · 대한채소. · 축구 전시. · "마코야비드"의 삶. · 복선 장안궁의 역사. · 앞으로는 그 당시의 서민들의 삶(문적 서민이면 더 좋겠습니다). · 독립운동가들의 삶. · 건국 초기에 관한 객관적 시각을 했으면 함. · 옛날의 예기를 전시해주세요. · 체험물. · 복선 기록 사진. · 건축물에 관한 전. · 더 많은 역사적인 것을 주제로 한 전시. · 서울의 근대 역사와 관련한 전시. 현재의 서울과 비교해서 보면 좋겠어요. · 금번 전시가 최근 조양방은 익산동, 복선의 과거를 보여주듯 피난민 정착촌(이 태항, 우암동 등)의 변천사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· 광화문역의 역사 같은거 해줬으면 좋겠다. · 장경궁의 역사를 좀 더 상세히. · 지루하지 않은 주제면 괜찮다. · 조선에 대한 전시. · 일제강점기. · 서울은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자주 방문하는 수도이므로 한국이라는 나라 에 오랜 수도되었음을 알리는 전시회가 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· 임진성, 일제의 사진전. · 시촌? 대신: '대오서점'은 배우세요! 꼭! · 궁중 한복에 보기. · 강남 개발사. · 사라지는 골목들, 마을. · 서울의 각 지역별 소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. · 옛 어린이 장난감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성균관 전시 보고 싶습니 다. · 예전 생활상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아요. · 서울 지역에 대한 정보. · 서울의 1980년대 모습. · 복선 말고 다른 서울 지역에 대한 기획도 있었으면 한다. · 시촌. · 장경궁의 역사에 대해(일제강점기 포함). · 청덕궁쪽 고관대적이 다닌다 길과 '피맛골'에 대한 이야기. · 독립운동가들의 가족과 후손의 이야기. · 현재의 서울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비교한 전시. · 한강의 전설. · 민복 체험, 한복의 종류. · 독립운동이나 1930년대 일본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· 옛날 물건들 전시. ·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역사를 주제로 시대별로 8.15를 집중 전시 부탁해요. · 서울의 숨겨진 명소. · 복선 말고도 다른 동네(서울에 위치한)에 관한 전시들이 시촌화라는 키워드로 연결했으면 좋습니 다. · 인사동. · 궁중 음식이나 생활음식사 전시도 재미있을 듯 합니다. · 서울 지역별 변천사. · 서울의 5대 궁궐. · 서울에 관한 예술 전시. · 5.18 전시. · 일제강점기 또는 대한제국 당시 역사적 배경에 대해 특별전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일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인데, 과거에 일본이 한 일에 대해 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· 서울의 남문 등 각 동네에 대한 역사.
--	--	---